

2019년 3월호

선생님을 위한 뉴스레터

3월이 두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두려운 교사

- 1 새 학기 새 마음, 그렇지만.....
- 2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 3 학생과 보호자를 대할 때

발행월 2019. 03.
발행인 김시오
편집인 정운선
발행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B1
Tel. 053-313-3909
Fax. 053-313-3910
<http://www.smhrc.kr>
디자인 홍익포럼

*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제작하였습니다.

1 새 학기 새 마음, 그렇지만.....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을 맡은 000선생님은 새로 배정 받은 교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한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1학년도 아니고 이미 학교를 3년이나 다닌 4학년생이 학교에 가방을 들고 오지 않거나 수업 도중 고함을 지르고 혼자서 계속 떠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겠다며 교실 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벌컥 벌컥 화를 내고, 이런 일들로 주의를 주면 잔뜩 겁을 먹거나 막무가내로 화를 냅니다.

지난 해 담임을 맡았던 동료 교사에게 아이에 대해 물었더니, 작년뿐만 아니라 입학 때부터 적응을 못해 담임교사들이 줄곧 힘겨워했었던 학생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아이에게 학교는 여전히 힘든 곳인가 봅니다.

2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1. 학생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학교부적응

입학 후 최초 적응 기간 동안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는 아이들은 교실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짜증을 쉽게 내고, 의욕 없이 늘어져서 과제에 불성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쉽게 싸움에 휘말리고, 심지어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학교부적응의 원인

다른 정서행동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부적응의 원인은 다면적입니다. 보육이 중심이 되는 유치원에서 교육이 중심이 되는 학교로의 이동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과 새로운 구성원들과의 만남, 집단 규칙 준수 등 환경이 변하면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지요.

대개 초등학교 입학 이후 적응기간을 3개월 정도로 보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도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학교부적응의 원인을 학교 바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내 폭력 경험, 오래도록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혹은 무관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학업에 심한 부담감을 주게 되면 학교는 아이에게 점점 더 두려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감정이복이 심한 성격, 소극적인 성격, 예민한 성격을 지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생과 보호자를 대할 때

1. 아이의 행동 속에 숨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학 생

학생의 부적응 행동이나 부적응 문제는 그 아이가 ‘문제아’라서가 아니라 어떤 원인의 결과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주세요. 아이의 부적응 문제는 가정 환경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몇 학년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시선을 거두고, ‘나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아이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보호자

아이의 부적응 문제를 도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를 조력자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통보나 라벨링이 아닌 도움을 구하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부적응과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진단용어는 피하고 차분하고 중립적인 어투로 사실전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 **학생과의 대화** - 아이의 부적응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응 행동으로 야기되는 상황이나 선생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대화 방법을 써봅니다.

① 무기력한 아이의 경우

“○○아, 선생님이 보니 네가 한참을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심심하지는 않아? 선생님은 너와 함께 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니?”

②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의 경우

“○○아, 네가 선생님이 말을 할 때마다 너의 생각을 불쑥불쑥 이야기해서 선생님은 오늘 계획한 수업진도를 다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 도와줄 수 있겠니?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쉬는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보자.”

③ 쉽게 화를 내는 아이의 경우

“○○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왜 자꾸 화가 나는지 얘기해줄 수 있겠니? 선생님은 네가 화난 이유를 몰라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

2) **보호자와의 대화** - 단정적인 말 대신 **관찰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어머님, ○○가 수업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에 대해 잘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께 ○○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는 ‘학교부적응입니다.’라고 단정하는 어투를 피합니다. 아이에게는 자기를 벗어나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시선을 돌려주시고, 보호자에게는 아이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